

■ 센터 소장 인사말

연세의료원의 통일을 향한 사명을 다시 확인 합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은 한반도에 새로운 정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많은 희망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권 유지의 근본적 도구이자, 정권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서의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비핵화 과정”은 우리나라나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과정”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기에, 비핵화 협상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자체가, 사실은 비핵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궁극적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발걸음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연세의료원은 통일을 준비하는 작업을 쉼 없이 꾸준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본과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과목 <통일과 의료>를 3분기에 잘 진행하였습니다. 북한과 통일관련 외부 연구비들이 수주되어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북 식량 지원의 경험 및 북한의 다재내성 결핵 관리에 대한 원내세미나가 많은 원내 분들 및 통일부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제 5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이 성대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 외무부 장관이신 윤영관 교수님의 특강과 토크쇼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엄숙하고 진지하게만 다루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세의료원이 북한과 통일에 대하여 이렇게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준비 활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았다는 그 믿음과 정신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과 믿음은 1885년 우리 기관이 창립을 하여 환자들을 치료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모든 연구 활동을 하여 온 것의 기초입니다. 연세의료원은 앞으로도 이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 건강공동체가 만들어 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과 학생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전우택 올림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 역량강화 및 소진 대응 프로그램(H2) - 5개월 간의 여정

Helper들의 역량강화와 소진 대응을 위한 5개월 간의 여정

2019년 5월 통일보건의료센터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에서 주관/주최하는 <2019년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공모>의 사업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통일보건의료센터는 <탈북민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 역량강화 및 소진 대응 프로그램(Help for the Helper, 이하 H2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지원자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소진(burn-out)”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5개월에 걸친 워크숍과 세미나 프로그램이 있었다.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남한 주민 10명과 북한 주민 10명은 이 여정 동안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을까? 이들의 지난 5개월 간의 활동을 들여다 본다.

오리엔테이션, 1차 워크숍, 그리고 세 번의 역량강화 세미나

지난 6월 17일 세브란스병원 본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차 워크숍, 그리고 세 번의 역량강화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제주도에서 열린 1차 워크숍에서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법을 배우고 예술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배우고 연습했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 만남인 7월 세미나 전까지 자율적으로 연습하도록 독려받았다.



또한 제주도의 한적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그 동안 탈북민의 한국 정착을 돕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었다. 참가자들은 타인을 돌보느라 정작 소진되고 있던 자신을 돌보지 못했는데 짧지만 달콤한 휴식이 되었다고 전했다.



7월에서 9월까지 이어진 세 번의 역량강화 세미나에서는 참가자들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마주하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었다. 전문가들과 함께 트라우마, 우울, 수면장애, 자살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고 상담 과정에서 대응방법을 논의 했으며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전문지원자 역량강화 및 소진 대응 프로그램 - Help for Helpers (H2) 프로그램



각자의 사례 공유를 통해 토론과 공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가자 대부분이 상담자로 활동하는 만큼 상담 기법에 대한 강의를 통해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했다.

짧고 한정된 시간이었지만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부했던 시간이 참가자들에게 다시 탈북민들을 마주하고 도와줄 에너지원이 되었을 것이라 기대한다.

■ 2차 워크숍

전문지원자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감, 유대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강릉에서 치러진 2차 워크숍은 지금까지 진행된 훈련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그 간 세미나를 통해 배운 내용들을 실천해온 이야기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 공유하고 반성하기도 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참가자들 간 공감과 유대가 깊어진 시간이었다.

많은 참가자들이 바디스캔을 통한 알아차리는 연습이 자신을 돌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일상 생활 속에 시간을 내어 가볍게 걷는 것,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호흡하는 것 등 매우 간단하면서도 꾸준히 하기 쉬운 활동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 지원자는 이러한 활동들을 습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전하기도 했다.

■ 열린 강좌 통한 공유

더 많은 전문지원자들에게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며

H2프로그램은 2019년에는 두 번의 열린 강좌를 앞두고 있다. 11월 14일과 12월 5일 예정된 열린강좌에서는 기존 프로그램 참가자 외에 탈북민 정착지원 활동을 돕는 활동에 종사하는 더 많은 지원자들을 사전신청받아 그 동안의 강의내용을 리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을 통해 더 많은 지원자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

제 40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 “북한 식량지원의 딜레마”

- Christy Gavitt, Global Health Consultant, MPH, MIA

□ 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오후 6시

□ 장소 :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



강사 소개 Christy Gavitt 국제보건 컨설턴트

경력

1974년~1976년 미국평화봉사단 소속으로 한국 온양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교사들을 연수함.

1977~1996년 국제구호단체 Care 소속으로 한국, 토고, 르완다, 모잠비크, 소말리아 등 10여 개 국에서 국제구호 및 개발 프로그램 수행

1988년 6~10월, 1999년 2~7월, 북한에서 미국 정부의 food-for-wor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5만톤의 옥수수과 밀을 배분하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프로젝트 평가 수행

2000~현재 미국적십자, 엘리자베스 글레이저 소아 에이즈 기금, 국제적십자연맹 등에서 국제보건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



The Food-for-Work Project(이하 FFW 프로젝트)

1998년 6월부터 10월 그리고 1999년 2월~7월 5개의 비영리국제구호단체들의 연합인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Consortium의 소속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FFW의는 3단계로 이뤄졌는데 홍수로 망가진 강과 저수지를 수리해서 농업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재건 작업에는 시골과 도시주변부의 산업/공장 실업자들이 참여했고 이들에게는 노동의 대가로 15만 톤의 옥수수과 밀을 배분했다.

몇 가지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과 접촉 해야 하는 이유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안내원이 방문지를 1주일 전에 미리 알려주었고 일하는 사람 중 한 명을 불러내어 언제, 얼마나 식량을 받았는지, 누가 준 것인지 아는지, 전체 식량 중 미국이 준 식량이 얼마나 큰 비중인지 등을 질문했다. 매우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지역을

제 40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북한 식량지원의 딜레마”

- Christy Gavitt, Global Health Consultant, MPH, MIA



모니터링해야 하고 정해진 곳에만 갈 수 있었으며 턱없이 짧은 기간 동안의 활동만 허락되었기에 식량이 전국에 골고루 배분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나아지는 것을 목격했고 지역 주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도움에 고마워하며 호의적인 북한 지역 관료들, 주민들이 있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안내원들은 프로젝트 팀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주었고 주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지역의 이익에 대해 생각했으며 조사단에게 호의적이었다. 경직되고 호의적이지 않았던 중앙정부의 분위기와 달랐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북한과 계속 접촉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람 대 사람으로 계속해서 접촉했을 때 서로에 대해 순수한 호기심이 생기고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접촉에 대한 제언

Christy Gavitt은 인도적인 지원에 있어 지역에 직접 가서 존재를 드러내고 지역 주민, 관리 들과 교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한 접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녀는 도움을 원하면서도 국제 사회의 모니터링을 거부하는 독재정권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팁을 제안했다. 짧은 기간 동안, 작은 규모의 구성원으로, 작은 규모의 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되고 너무 작은 규모의 인력과 자원이라 할지라도,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 위협적이지 않다고 고려되고 신뢰를 준다면 그런 방식을 취하여 지속적인 북한과의 접촉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지 않고 북한 측의 상황과 소통에 따라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홍보하거나 미디어 사용을 절제되게 활용하는 프로젝트들, 작고 민첩하며 융통성 있는 자원들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활동했음을 알리며 향후 북한과의 사업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제 41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북한 의료 최대과제, 결핵과의 전쟁 - The fight against TB and MDR-TB in North Korea: too little, too late?”

- K.J. Seung, Harvard Medical School

□ 일시 : 2019년 10월 21일(월) 오후 6시

□ 장소 :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

강사 소개 K.J. Seung 교수 (하버드 메디컬스쿨)

2001~2005년 PIH의 일원으로 페루에서 다재내성 결핵환자의 치료를 위해 페루 보건부와 긴밀히 협력함. 또한 임상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WHO의 규범가이드라인의 기초를 마련함.

2008~2015년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다재내성결핵의 임상진료 관리 및 감독을 했으며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다재내성결핵 프로그램을 개발함.

2010년~현재 2010년부터는 유진벨 재단과 함께 북한에서 다재내성결핵을 알리고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임상 프로토콜 개발, 프로그램 설계 등을 수행하고 있음.

2010년~현재 USAID에서 TB CARE 2 대상 국들의 프로그램 현지 운영을 감독하고 핵심 활동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약력

2017-현재) Assistant Professor, Harvard Medical School(Global Health and Social Medicine)

2015-현재) Co-leader, endTB 프로젝트

2010-현재) Medical Director, Eugene Bell Foundation

2003-현재) Instructor in Medicine, Harvard Medical School(Global Health and Social Medicine)

2001-현재) Senior Health and Policy Advisor for TB, Partners In Health

2004-2006) Medical Officer, World Health Organization, Department of HIV/AIDS



제 41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북한 의료 최대과제, 결핵과의 전쟁 - The fight against TB and MDR-TB in North Korea: too little, too late?”

- K.J. Seung, Harvard Medical School



K.J.Seung 교수는 2001년부터 Partners In Health에 조인하면서 페루,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다재내성결핵 진단과 치료를 위한 프로토콜 개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왔다. 그리고 2010년, endTB 프로젝트의 대상국 중 하나인 북한 평양에 가게 된 것이 북한과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다재내성결핵 개념조차 없던 북한 K.J.Seung교수는 북한에 처음 갔을 때를 떠올렸다. 다재내성결핵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고 실험실도, 장비도 없었으며 결핵환자들은 산골짜기에 위치한, 매우 간단한 형태의 건물 안에 하나 방에 4~5명씩 모여 있었다. 다재내성결핵에 효과가 없는 약만 복용하고 영양공급 실태도 매우 부실했다. 치료에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

다재내성결핵 알리고 진단과 치료에 대해 교육 북한 의료진을 대상으로 다재내성결핵의 개념을 알렸다. Resistance Mechanism을 설명해주고 단독 약재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점을 납득시켰다. 그리고 다재내성결핵 환자들을 등록시키고 진료 프로토콜을 따르는 치료를 감독했다. 다재내성결핵 치료사업의 세 가지 요소로 진단관리, 환자관리, 약관리를 정의하고 사업을 수행했다. 진엑스퍼트를 통해 결핵 유무, 내성 유무를 1-2시간 내 확인하고 환자의 영양상태를 보충하며 치료에 적합하게 병동을 보강했다. 또 약국의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며 관리했다.

6개월에 한 번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족하지 않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K.J.Seung교수는 "환자의 사진을 찍어 등록 해놓고 매 6개월마다 검체를 통해 차도를 확인하므로 지난 6개월 간 얼마나 프로토콜대로 치료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진벨 측이 직접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의료진이 교육을 받아 치료와 환자 관리를 수행하므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6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더 자주 시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의료진의 치료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 유진벨 측의 판단이다. 남한과 비교했을 때 치료의 중단률은 월등히 낮고 사망률은 10%로 남한과 같다. 실패율이 18%이지만 진단이 너무 늦었거나 여러 요인의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유진벨 재단의 이러한 성과는 관련 전문국제기구의 인정을 받았고 앞으로 더 많은 Global Fund가 이 활동에 유입될 예정이다 ■

제 5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

통일 비정상회담



지난 11월 4일,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는 교직원과 의대, 치대, 간호대, 약대 및 보건대학원 학생들 100여명이 모였다. 올 해로 5회를 맞는 세브란스 통일의 밤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다. 이재훈 치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 5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은 전우택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다.

첫 순서인 기초강연에서는 윤영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한반도 통일 : 국제정치 현실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한반도 분단의 문제와 전략에 대한 강의를 했다.



윤영관 교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특성과 냉전시대 진영 대결, 중국의 이해관계를 분석하며 분단의 시작과 그 과정을 설명했다. 뒤이어 2019년 현재의 상황을 미중경쟁의 심화, 북핵 문제 측면에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통일로 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심력은 약화하고 통일에 가까워지게 하는 구심력은 강화하여야 한다"며 각각을 위한 외교전략에 대해 제언했다.

<통일 비정상회담>에서는 방송인 김원희, 알베르토 몬디, 럭키가 출연하여 윤영관 교수, 전우택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과 함께 세 가지 주제에 대해 토크쇼를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로 북한의 현재에 대해 공산당 체제 하에서 북한에 장마당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북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알베르토는 "북한 젊은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할 수 있는가 " 라고 물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제 5회 세브란스 통일의 밤 통일 비정상회담



뒤이어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토론에서 윤영관 교수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이 더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통일이기에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계산보다 우리의 자손에게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라는 역사의식을 떠올려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관객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의 방향에 대해, 패널들은 점진적인 방향으로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데 입을 모았다.



마지막 순서인 OX퀴즈에서는 북한의 생활, 문화, 제도,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문제를 맞히며 관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올해 세브란스 통일의 밤은 학술적인 성격과 더불어 대중의 재미를 이끌어 내는 요소를 더 많이 추가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거운 호응과 함께 마무리 되었다 ■



세계약사연맹 총회 남북 대표단 조우

지난 9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2019년 세계약사연맹(FIP)총회에서 남측 대표단으로 세브란스 김재송 약무국 파트장이 북측 대표단과 만남이 있었다.

‘제약의 새로운 지평선- 변화의 바람 순항하기’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측에서 리성일 보건성 제약공업관리국 기사장(한국 보건복지부 국장급)을 단장으로 보건성 당국자와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국장 등 총 6명의 북측 대표단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북측 대표단의 참석은 FIP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FIP 역사상 처음으로 북측이 참석하였고, 공식행사전에 남북대표단이 깜짝 조우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9월 20일 오후 회장 FIP면담 일정을 위하여 면담 장소로 일찍 도착하여 대기 하고 있던 차에 북측 대표단과 마주치게 되어 깜짝 조우를 하게 되었다.

이 만남에서 양측 대표단은 서로를 소개하고 FIP 공식 행사 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김재송 파트장이 소개를 하니, 북측에서 세브란스병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사를 건네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과 공급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며 “현재 남북의 관계가 어렵지만 이해의 폭을 넓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차후 관계가 결실을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주요인사 왼쪽부터 ▲첫번째 장석구 FAPA 부회장 ▲다섯번째 김영남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약국장, ▲여섯번째 캐롤라 벤더호프 FIP COO ▲일곱번째 캐더린 두간 FIP CEO ▲여덟번째 리성일 보건성 제약공업관리국 기사장 ▲아홉번째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열번째 도미니크 조르단 FIP 회장 ▲열한번째 박명숙 대한약사회 국제이사 ▲열두번째 이진희 약사공론 사장 ▲열세번째 주상훈 대한약사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열네번째 김재송 대한약사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열여섯번째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세계약사연맹 총회 남북 대표단 조우



북측 대표단의 단장을 맡은 리성일 보건성 제약공업관리국 기사장은 “우선 먼 외국에 나와 거래말을 들으니 반갑다”며 “북조선이 FIP에 처음으로 참석해서 생소한 것이 많다, 행사기간 서로 협조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FIP에 북남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뜻 깊게 생각한다”며 “우리도 제약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대업 회장은 “오늘의 만남이 너무 고맙고 소중하다”며 “일회성이 아니고 남북 제약산업과 약학 분야의 교류가 장기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학회장에서도 남북측 약사들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김재송파트장은 북한 적십자병원 김영남약무국장과 서로의 병원약국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였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서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얘기하며 헤어졌다고 하며, 김영남 약무국장이 집에 초대받았으며, 앞으로 기회가 되어 학회장의 집으로 가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해 왔다 ■

☐ 통일보건의료세미나 안내

차수	일시(예정)	장소(예정)
제 42차	11.26(화) 저녁 6시	의과대학 본관 1층 의대회의실
제 43차	12.24(화) 저녁 6시	

※ 매 월 넷 째 주 화요일 오후 6시 (방학 기간 1, 2월 제외)

주제, 연자, 장소 등 상세 정보 e-mail과 포스터 게시물을 통해 확인

☐ 연구활동 소개

연구과제명	바이오마커 기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측정도구 개발 및 사회적 회복 요소 발굴
책임자	추상희 간호대학 교수
발주기관	한국연구재단
기간	2019. 6. 1. ~ 2024. 5.31 (5년)

연구과제명	수리 모델을 활용한 북한 결핵 및 말라리아 발생 예측 기초 연구
책임자	강영애 의과대학 교수
발주기관	한국연구재단
기간	2019. 6. 28. ~ 2020. 6.27 (1년)

☐ 기타·광고

2019 통일보건의료학회 추계학술대회



2019 통일보건의료학회 추계학술대회
생명을 살리는 소통, 남북 보건의료 용어 통일을 위한 준비
2019년 11월 29일(금) 14:00 ~ 17:35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B1 국제원격회의실
공동주최 | 고려대학교 통일보건의료학회
후원 | 고려대학교 통일보건의료학회
 ○ 총 회 비: 14:00 ~ 14:40 (사전등록 2만원, 현장등록 3만원)
 ○ 등록비: 14:40 ~ 15:00 (사전등록 2만원, 현장등록 3만원)
 ○ 사 전 등 록 비: 15:00 ~ 15:30 (사전등록 2만원, 현장등록 3만원)
 ○ 회 원 비: 15:30 ~ 16:0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회 원 비: 16:00 ~ 16:3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회 원 비: 16:30 ~ 17:0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회 원 비: 17:00 ~ 17:3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회 원 비: 17:30 ~ 18:0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회 원 비: 18:00 ~ 18:3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회 원 비: 18:30 ~ 19:0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회 원 비: 19:00 ~ 19:3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회 원 비: 19:30 ~ 20:0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회 원 비: 20:00 ~ 20:3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회 원 비: 20:30 ~ 21:0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회 원 비: 21:00 ~ 21:3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회 원 비: 21:30 ~ 22:0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회 원 비: 22:00 ~ 22:3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회 원 비: 22:30 ~ 23:0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회 원 비: 23:00 ~ 23:3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회 원 비: 23:30 ~ 24:00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오후 2시
- ☐ 장소 :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B1 국제원격회의실
- ☐ 사전등록 : 2019년 11월 21일(목)까지
- ☐ 등록비 : 비회원 사전등록 2만원, 현장등록 3만원
 회원 사전등록 1만원, 현장등록 2만원
- ※ 학생과 평생회원은 무료

- ☐ 등록방법 : 사전등록비 입금 후 아래 링크로 신청 혹은 QR코드 스캔 (<http://naver.me/5GbvzhZZd>)

- ☐ 문의 : ahku.office@gmail.com

(02-2228-0995)





통일보건의료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TEL 02-2228-0997 ✉ E-mail uni-health@yuhs.ac

🏠 http://www.yuhs.or.kr/mssn_realize/CHUK/intro/

📘 Facebook | www.facebook.com/ys.unihealth